

아델 신곡 발매에 팝계 '들썩'

21세기 최고의 디바로 통하는 팝스타 아델이 정규앨범을 발매한다는 소식에 팝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5일 빌보드는 아델이 이달 15일 신곡 '이지 온 미' (Easy on Me)를 내놓는다고 보도했다.

아델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약 20초 분량의 '이지 온 미' 발매 예고 영상을 게재했다. 그 직후 세계 주요 언론은 아델의 컴백 소식을 잇달아 보도했으며 팬들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신곡 공개는 추후 아델의 정규 4집 발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델은 아직 정규앨범의 발매 날짜를 밝히진 않았으나 신곡이 공개되는 만큼 앨범 역시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다.



▲ 아델, 사진=페이스북(아델)

아델은 2018년부터 이 앨범을 작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아델은 9월 발매를 예고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앨범 제작 및 발매가 미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팬들이 아델의 새 앨범에 이처럼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아델이 활동 헛수에 비해 작품 수가 적은 데다 앨범을 내놓는 대로 모두 명반으로 꼽히며 크게 히트했기 때문이다.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아델은 2008년 데뷔 앨범 '19'를 내자마자 대중과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팝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그莱미 어워즈'에서 4대 본상인 '신인상',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15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평단에서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근영, 영화 감독 데뷔…“나의 꿈 실현”

배우 문근영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문근영은 최근 SNS를 통해 연출 데뷔작 촬영을 마친 소식을 직접 알렸다.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첫 연출작 '바치-꿈에 와줘'라는 작품명, '감독 문근영'이라는 설명이 적힌 슬레이트가 담겼다.

'바치'는 세 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영화다. 문근영은 연출뿐만 아니라 첫 편에 출연도 했다. tvN 드라마 '유령을 잡아라'에서 문근영과 호흡을 맞췄던 배우 안승균, 무용가 이다겸도 출연했다.

문근영은 작품에 참여한 스태프에 대해 "나의 꿈을 실현시켜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소개한 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떤 것이 되게 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세 번째 작업까지 무사히 행복하게 마칠 수



▲ 사진=페이스북(영화공장)

있었다. 사진에 담진 못 했지만 함께해주신 스태프분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문근영은 지난 6일에는 SNS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문근영은 "촬영을 다 마쳤다. 편집과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말 오픈할 것 같다."며 "감독으로 데뷔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다. 아주아주 재밌게 촬영을 했다."고 극황을 전했다.

영화 연출 도전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서툴고 실수투성이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니까 설레고 성취감도 엄청난 것 같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다.

연기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작품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며 배우 컴백에 대한 계획도 전했다.

오징어게임, 한국 드라마 최초 에미상 후보될까?



▲ '오징어게임' 포스터, 포스터=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 최초의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로 거론된다.

6일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에 오를 조건을 갖췄다."고 보도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국립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은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 주도로 제작됐고, 미국에 배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징어 게임’은 국제적으로 제작됐다 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에미상 부문에 입후보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에미상 규정상 프라임타임과 국제 부문 동시 입후보는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버라이어티는 "팬들은 ‘오징어 게임’을 TV판 ‘기생충’이라 부른다."며 수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최근 에미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오징어 게임'이 상을 받을 확률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73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44개 상을 차지했다.

매체는 넷플릭스가 미국배우조합상(SAG Awards), 크리틱스 조이스 시상식(Critics Choice Awards) 등 다양한 시상식에 '오징어 게임'을 출품하며 에미상을 향한 행보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 내다봤다.

에미상은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TV 방송상으로, 'TV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린다. 미국 국립텔레비전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며 프라임타임, 데이타임, 국제, 스포츠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통상 에미상은 프라임타임 부문을 뜻한다.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Whittier Blvd
605
Slauson Ave
Sorenson
Telegraph Rd
Santa Fe Springs
5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